

#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7,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부입니다.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는 이전 에세이에서 방금 요약한, 산상수훈을 구성하는 앞선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회개하고, 다가오는 왕국의 빛을 비춥니다. 그의 차례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미래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4:17에 요약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다섯 가지 주요 담화 부분, 즉 왕국의 윤리, 왕국의 선포, 왕국의 임재를 강조하는 비유, 그 중 일곱 개나 여덟 개로 구체화됩니다. 왕국 안의 관계, 그리고 미래의 왕국과 심판, 종교 설립.

그 부분에도 일곱, 여덟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일곱, 여덟 개의 비유는 왕국의 존재보다는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 이 부분은 특히 왕국의 윤리,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담화와 23장부터 25장까지의 담화, 혹은 24장과 25장까지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가장 긴 담화이며, 첫 번째와 마지막 담화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시민법과 관련하여 사막 교부, 성 프란치스코, 재세례파가 고수한, 맹세를 하지 않거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보물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막 교부 등이 주장하는 좀 더 문자 그대로의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산상수훈을 이행해야 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과

은혜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글썬요, 이것은 마치 율법과도 같습니다. 단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복음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에 부응하도록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접근 방식은 음, 이것은 이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이전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박함에 대한 잘못된 믿음인 임시 윤리,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예수께서 이것이 파루시아 이전, 왕국이 도래하기 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살아야 하는 방식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셨고,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적 접근 방식이 있는데, 특히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이 결단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하나님께 급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도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글썬요, 이들 중 다수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모두가 완전히 진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문자 그대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는 과장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법은 요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입니다. 글썬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확실히 요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메시지가 원래 가졌던 방식으로 주의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마도 완전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가치를 강조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의 계층 구조에 대해 이 구절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제자들은 실제로 단순한 성직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입니다. 율법 대 은혜, 글썬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어려움을 볼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자유주의 사회복음은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려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내 말은,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쪽 빵을 내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에 순종하여 다른 쪽 빵을 내미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세대주의자가 아닌 구세대 세대주의자에 대해 전해지는 오래된 농담입니다. 한 소년이 싸움에서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쪽 빵도 돌려야 해? 이에 그는 '오, 엄마, 그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임시 윤리는 적어도 예수께서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 동시대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임박하다는 믿음에 대해 착각했다는 임시적인 윤리를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요구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접근 방식 중 가장 좋은 것을 모아 놓은 접근 방식 중 하나는 개시된 종말론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은 왕국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는 회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활 방식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문자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교부들에게서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신약에서는 왕국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Debelius, Stanley Hauerwas 및 기타 사람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 연설을 수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것은 그리스-로마 연설이 아니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러한 용어로 쉽게 분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사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 연설의 기능이 무엇인지 분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심의적일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새롭게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윤리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기독교론이다.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절정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윤리와 관련하여 윤리의 급진적인 잔인함과 우리 삶에 대한 급진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법의 요점이 아닙니다. 과장법의 요점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복음의 서술적 맥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조건 지어진다. 자기 성찰적인 경향이 있는 우리들, 특히나 자신을 얽잡아 보고 '아, 난 절대 이룰 수 없어'라고 느끼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더 큰 맥락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적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자신만큼 종교적이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 모두를 같은 수준에 두는 도전으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 순서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7장, 대부분의 자료는 누가복음 6장에서 찾을 수 있지만, 누가복음, 누가복음 13장 등의 다른 구절 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재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나 요약을 통해 말을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소적으로 재배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종종 공통된 순서로 나온다는 사실은 매우 좋지만 이것이 둘 다 정확히 같은 순서이거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순서와 똑같은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쓰여진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중 많은 부분이 한 번에 언급된 것 같습니다. 마태와 누가를 비교해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학은 재배열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가르침을 암송할 때 연대순으로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곳에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기는 연대순으로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와, 이것은 이 복음서와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것은 예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저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구약성서의 수사학적 형식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예수 시대에 구약성서를 넘어 발전하여 다른 유대인 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친숙한 의사소통

방식이었지만 일반적으로 현자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들은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인격은 다양한 교육 방식을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현인처럼 잠언과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구약성서의 현자들, 그리고 집회서 등의 중간 기간에도 유대인 현자들은 이러한 형식을 계속 사용하고 이러한 형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처럼 말씀하시며 성전에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신탁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성경을 설명하시거나 바리새인들과 성경 토론을 벌이시는 미드라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현자들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서 독특하면서도 공통된 특성을 모두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시다시피, 아멘, 기도 끝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문 앞에 그런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뚜렷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랍비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전의 전통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랍비 아키바(Rabbi Akiba)가 요하난 벤 제카이(Yochanan ben Zekai)를 인용하거나, 힐렐(Hillel)을 인용하거나, 쉘마야(Shemaiah)와 오브텔리안(Obtelian)을 인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의 권위에 따라 말씀하시거나 아버지의 권위에 직접 호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매우 특징적인 점은 다른 랍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사용하신 다른 표현들도 당시에는 매우 흔했습니다. 비유와 잠언은 다른 교사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수사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인 과장법은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매우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기대되는 교육 스타일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유머는 자신의 눈에 큰 나무가 튀어나왔을 때 다른 사람의 눈에서 가시를 빼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거나 사람이 베는 것과 같은 다른 종류의 그래픽 장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각 자료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마음 속에 머물게 하는 매우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할 때 사람들의 상상력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법 등을 살펴보는 예수의 고대 유대인 수사법의 성격, 예수께서 말씀하실 생생한 방식.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어떤 단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이 문자 그대로라면 모든 재혼은 간음입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혼식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결혼은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목회자들은 두 번째 결혼과 세 번째 결혼을, 비록 그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일어나더라도 파기해야 합니다.

이 교리가 목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 만약 누군가가 이 비디오의 후반부를 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나는 그것이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결혼 생활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래픽 이미지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1만 달란트가 넘는 빛을 지게 된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로마 제국을 제외하고 당시 어떤 나라에서 유통되던 화폐의 총량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왕이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빛을 지게 놔두겠습니까? 분명히 이 왕은 최고의 수학 실력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빛이 무한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니면 동료 종들을 학대한 종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시의 종교 단체를 질책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학대하는 목사들은 잘려져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그래픽적인 이미지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순교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초기 평론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나치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제자도의 십자가에서 부유한 젊은 통치자에 대해 쓰면서 신학자들이 너무 자주 더 많은 돈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보다 이 구절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립니다. Soren Kierkegaard는 그 이전의 철학자였으며 그는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대규모 성경 해석자들이 우리의 성경 이해를 돕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손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전해지고 싶으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젊은 통치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길, 우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 사회 전체가 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학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망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암시하는 바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준 후에, 그것을 믿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등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메시지를 실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동시대 사람들을 화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화나게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그가 모든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주라

하였느니라.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요점은 왕국의 요구가 급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도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의 배경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평한 곳입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어울리나요? 유대와 갈릴리에는 산간 지방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곳도 있었고, 구릉지에도 평평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할 수 있죠. 산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의 고원일 수도 있습니다.

산의 언어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많은 일들이 산에서 일어납니다. 변형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토라를 설명하고 새로운 토라와 같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토라를 주는 것과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보다 크시다(마 23:2). 왜 그는 가르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책을 읽으려고 서 계시고 가르치기 위해 앉아 계시던 동일한 일을 봅니다. 그것은 적어도 고급 교사들에게는 관습이었습니다.

초등교사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선배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앉아서 하십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청중. 음, 4:25부터 5:1까지에서 그는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28과 29에서는 분명히 군중이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절과 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발견하는 의미가 오직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아마도 제자만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사회 전체에 기독교 제자의 가치를 강요하고, 누군가가 당신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반대쪽 뺨을 대야 한다고 사회에 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 그것이 이상적일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인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듣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더 높습니다.

팔복, 5.3부터 12까지. 그리스 수사학과 로마 수사학 모두에서 청중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를 갖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구약성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문학적 형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의 시작 부분인 시편 1편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며,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 될 것입니까? For, 그리고 그것은 축복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문학적인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초기 유대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 세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특히 유대인의 문학적 형식과 수사적 형식이 그렇습니다.

팔복 중 처음 네 가지의 찬양의 대상은 그리스어로 P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인의 맥락에서 전체 팔복 형식은 표준적인 전통적인 수사 형식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팔복의 메시지는 상당히 반문화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 중에는 강제로 왕국을 가져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메시지는 왕국은 부서진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국은 겸손하고 낮은 이들의 것입니다. 왕국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약하다고 느낀다면, 때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부서진 것처럼 느낄 때가 때로는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돌아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어떻게 실천되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임을 기억하세요. 음, 4:17에 요약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미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삶을 더 많이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축복. 예를 들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박해받는 사람이 왕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왕국을 빼앗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뒤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국의 도래를 위해 준비된 백성에게는 포함이 있습니다. 인클루시오는 같은 음표로 시작하고 끝나는 곳입니다. 두 번 다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음, 5.3과 5.10에서는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왕국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왕국을 받을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관련된 내용 중 일부를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편안함. 글쎄요, 이사야서에서 그것은 종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것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이로의 딸을 키우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야이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회당장의 딸을 키우는 일이 위로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은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축복은 그분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다시 종말론적, 마지막 때의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5장은 부활 시에 있을 미래의 잔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잔치에 대한 기대는 유대 문헌에서 매우 발전된 다른 곳에서 강조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분은 약속된 새 시대인 새 출애굽을 통해 자기 백성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모든 나라에 치료를 가져올 열매가 맺힌 생명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봉사의 직무를 통해 오천 명을 먹이시고 사천 명을 먹이시는 일을 미리 맛보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를 받을 것이라고 읽습니다. 글쎄요, 자비는 최후의 심판 때 당신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주여, 예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글쎄, 그러한 것들은 첫 번째 출애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현재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는 신성한 수동태가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언어는 시편 37편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이제 시편 37편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유대인 통역자들은 종종 kol ha-eretz, 온 땅을 문자 그대로 온 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다른 예언들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 다가올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마도 온유한 자, 현재 권력자들에 의해 종종 짓밟히는 자, 온유한 자, 미래가 그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실 것입니다.

왕국, 왕국 백성을 위한 전제조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왕국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국은 폭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역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시대에 이 지혜는 서기 70년에 입증되었습니다.

66년에 로마에 반기를 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로마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므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 반란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주변 지역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가 되면서 매우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지혜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해 두루마리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유한 자, 아마도 이전의 성경 구절인 아나웜(anawim)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부서진 자, 비천한 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 경건과 연관지을 때도 있었는데, 특히 그것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일찍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건조하고 곤비한 땅에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배고픔, 즉 단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단식은 종종 애도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애도하거나, 주변 사회의 죄악을 둘러보고 단지 죄를 애도함으로써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 금식이 있든 없든 이사야 58장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공의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도 이사야 61장에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만이 거하는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73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종류의 권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종류의 약속은 일상 생활에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뺨을 대고 원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옹호하셔야 합니다. 이 팔복의 절정은 왕국에 대한 박해이다(5장, 10장부터 12장).

예수님은 의를 위한 고난, 곧 나로 인한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것들을 서로 연결한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유대 문헌의 다른 곳에서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신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최대한의 보복을 금지합니다.

단지 반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것은 큰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옛 선지자들과 비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옛 선지자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1317년에 예수의 제자들이 선지자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살펴보고 싶었던 것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지니므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따르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난 후에 오기 때문에 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행복의 모델이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21:5에서는 당신의 왕이 온유하게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인하여 애통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에 관해서는 9장 13절과 27절에서 사람들이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조롱을 당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26:68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맥상 베드로에게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그는 거짓 선지자로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크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마태복음 10:24, 25).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팔복의 모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왕국의 이러한 생활방식을 실천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왕국의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소금과 빛에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왕국은 단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왕국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맛있는 소금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자라고 주장하지만 제자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나 보이지 않는 빛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소금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녹는 사해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불순한 소금의 종류를 비교했으며 그 비교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엔 또 다른 비교가 이 문제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기독교인일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1세기 말경에 후기 랍비인 랍비 타르핀에게 와서 랍비 타르핀에게 맛있는 소금으로 무엇을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는 노새의 탄생으로 소금을 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농장에서 자라지 않았고 생물학 전공도 아닌 분들은 노새에게 산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임입니다. 그들은 말과 당나귀 사이를 건너기 때문에 노새는 출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점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어리석은 대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짠맛을 잃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금?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왕국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제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글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자인가요? 그들이 실제로 왕국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왕국에 무가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적외선과 자외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물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 맥락에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예는, 예를 들어 등불을 말 아래에 두거나 쪼개서 빛을 가리고, 빛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처음부터 불을 붙일까요? 그분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글썄,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조명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언덕 위에 햇불 등이 있는 도시는 밤에 시골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종 세상의 빛으로 불렸으며, 따라서 그 도시도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그분은 이사야 42장에서 열방에게 빛을 반향하고 계십니다. 종의 사명, 이사야 49장에서 우리는 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해서 그 사명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빛을 보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5장 16절에서는 너희 빛을 비취게 하여 사람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 여러분의 선행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선행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나 조금 뒤인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지 못하게 하여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훌륭한 유대인 현자가 되어 요점을 분명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역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들과 같을까 하노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되리라.

글쎄,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대답하지 않을 것인가? 음, 둘 다 어느 정도 진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에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지 못하게 하여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문제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행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고,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중으로서 그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사적으로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말이 이어집니다.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이 문제로 인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5:17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성서와 다른 유대인 자료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같은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원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5.17,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5.18, 율법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5.19 가장 작은 계명을 지키면 큰 자가 된다. 그것을 깨뜨리면 당신이 가장 작아집니다.

그리고 5장 20절,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가 하리라. 글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순종의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중 앞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한 에세네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매끄러운 것에 대해 말할 때 에세네파가 바리새인들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처럼 대중의 눈에 많이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들을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방식으로 모든 것에 대해 꼼꼼하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윤리를 살펴보면, 적어도 서류상으로 보면 그들의 윤리는 종종 예수의 윤리와 유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어떻게 그것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음을 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어떤 외적인 의보다 더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 즉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18.

가장 작은 요드도, 가장 작은 글자나 글자의 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는 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 말한 다른 유대인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았을 더 광범위하고 친숙한 이야기를 암시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래의 이름에서 한 요드를 취하셨습니다. 사래가 사라로 바뀌었을 때, 그녀의 이름에서 요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17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이 요드가 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토라에서 빼내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욕했습니다. 언제 나를 성경에 다시 넣어주실 건가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쨌든 이야기에 따르면 이 요드는 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16절에서는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 예하수아로 바뀌었을 때 그의 이름에 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요드도 없앨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요드가 “하나님, 솔로몬 왕이 성경에서 나를 제거했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하나님은 “천 명의 솔로몬이 뽑힐 것이지만 단 한 요드도 내 말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생생한 이미지를 암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는 토라와 율법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 보면, 가장 작은 계명인 그것을 지키면 당신은 왕국에서 가장 작은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당신은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이 코이네 그리스어 시대에는 위대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작은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럼, 그것을 깨뜨렸다가 같은 날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중간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깨뜨렸는데 같은 날 당신이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중에 누가 천국에서 가장 작겠느냐? 이것은 수학 전공자가 왕국에서 당신의 지위를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픽으로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업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학생이 내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학생이 한 척도에 있고 온 세상이 다른 척도에 있다면, 이 학생의 지적 통찰력은 나머지 세계 전체를 능가할 것입니다.

다음날 랍비가 와서 다른 학생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학생은 너무 똑똑해서 만일 그가 한 저울에 있고 온 세상이 다른 저울에 있다면 그는 세상의 나머지보다 더 클 것입니다. 글썄요, 여기 이 학생이 이 학생에게서 이 학생에게 야간 뇌 이식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것은 요점을 강화하고 주의를 끌기 위한 그래픽적이고 과장된 방법이었습니다. 글썄요, 랍비들이 크고 작은 계명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최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은퇴한 로버트 존스톤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좋은 기사를 썼습니다. 랍비들은 가장 큰 계명과 가장 작은 계명을 말합니다. 글썄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랍비들 중 일부만이 아닙니다. 랍비들은 계명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 특별한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도 이것이 계명 중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와서 새 동지를 발견하고 새끼를 데리고 나가서 먹으려면 어미 새는 남겨두라는 말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를 알아차렸습니다. 두 계명으로 토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는 땅에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정말 오래 산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계명에 대한 상과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상이 같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과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도 동일합니다.

글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랍비들은 모든 사람이 때때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요점은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골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나는 누구도 살해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지만 다른 계명은 꽤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의 한 부분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주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곧 토라의 멍에를 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것이 배도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율법이나 율법의 일부를 거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520년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비즈니스 문서만 처리하는 마을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반 정도의 글을 읽고, 적어도 절반은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서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서기관들은 토라의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세심한 사상을 지닌 특별한 학파였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이 토라를 매우 세심하고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반복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해석 전통에 따르면 사두개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동으로 인해 매우 인기가 있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데 521년에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522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인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썄요, 예수께서는 527년과 31년에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528년과 32년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성실한 이혼으로 배우자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율법의 핵심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아버지께 의지하여 어린아이처럼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은 여섯 번이나 모세 율법의 핵심으로 가십니다.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바리새인들은 원칙적으로 그와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왕국의 멍에를 메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직함이 너무 많아 맹세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법은 눈에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적들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제한하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죄를 제한할 뿐입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마음을 다룰지라도 탐내지 말라. 그러나 율법은 죄를 제한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권리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랬듯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정보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5:21부터 48까지, 그는 기본적으로 구약성경 본문에 대해 미드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말씀하신다.

글쎄요, 그가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20세기 초 솔로몬 셰히터(Solomon Schechter)가 지적한 것을 놓쳤습니다. 솔로몬 셰히터(Solomon

Schechter)는 랍비 학자였으며, 그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과 같은 문구가 랍비들 사이에서 입증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유대인 교사들도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단지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법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종종 법 주위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카바나, 즉 마음의 의도인 카바나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토라에 대해서는 율법 주위에 울타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우연히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기 랍비들이 필풀(pilpul)이라고도 부르는 토론을 다루었습니다. 음, 그것은 정결한가? 안식일에 닭이 낳은 달걀을 먹어도 됩니까? 실수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보다 조금 더 엄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하자면 다른 방식으로 울타리에 접근하십니다. 그분은 실수로 율법의 이 계율이나 저 계율을 어기지 않도록 겉으로만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마음을 찾으러 간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면, 이 율법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목적과 마음에 다가가는 마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법에 표현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죽이고 싶지 않아요.

간음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당한 이혼으로 배우자를 배신하지 마세요. 서약보다 더 진실성을 가지십시오.

법적 저항을 피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적을 사랑하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48절에서는 만일을 대비해 나는 그 중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제시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48절에서는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정규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는 이 계명 중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예가 철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시다시피 그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에 대해 말했지만 마음으로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독신이고 그 사람은 나는 싱글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십시오.

즉,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비록 당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가 한다고 하더라도 왕국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미 달성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더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이것들을 보면, 때로는 대조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말이지만,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어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드입니다.

드 작지만. 대신 알라는 매우 강하지만. 대조적이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de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강한 그러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여러분이 "나는 당신에게 말하는데,

대조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개발 중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언급은 권위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당신이 말을 시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지만, 당신이 정말로 율법에 동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면 판단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형제나 자매를 라카라고 부르면.

라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빈 머리로 번역합니다. 그것은 공허함, 공허함,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라카라고 부르면 무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문자 그대로 이수네드리온, 산헤드린, 의회, 법원, 대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부르면, 더욱이 불 게헨나나 힌놈,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죄의 등급이 높아지고 심판의 등급이 높아지는 것은 심판, 아마도 하급 법원에서 산헤드린, 대법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보다 누군가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나쁜가요? 내 생각엔 이것들이 모두 대략적으로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같은 것을 말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취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해석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크리스(판단)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저는 그것이 지상의 산헤드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누군가를 빈 머리라고 부르거나 누군가를 무가치하다고 부르는 범죄로 누구도 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산헤드린이 취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문헌은 또한 하늘에 있는 산헤드린, 즉 하늘에 있는 법정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는 이 문맥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그는 비유적으로 하늘의 심판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게헨나와 유사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법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불 같은 게헨나를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가 말한 방식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헨나는 어쨌든 이미 일반적으로 불 같은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 같은 게헨나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불 같은, 불 같은 게헨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인 중에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법 주문은 종종 당신이 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다룹니다. 글썄, 유대인들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특히 유대와 갈릴리 유대인들과 더 멀리 동쪽에 있는 유대인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정욕을 막기 위해 머리 덮개를 썼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정욕에 대해 읽을 때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발, 손 또는 머리에 대한 정욕을 읽는다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동부,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이 머리를 가리곤 했습니다. 남성의 정욕을 막기 위해 머리카락은 완전히 가려져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께서는 이 시기의 다른 문서들과 달리 남성의 정욕을 여성들에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남자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도울 수 있고, 남자와 여자는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도울 수 있지만, 욕망을 행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형벌은 지옥불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걸림돌이라는 용어로 말씀하셨는데, 집회서처럼 그 당시에는 종종 배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원칙은 혼인 및 혼전 충실의 원칙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나 미래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둘러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셉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긍정적인 예를 볼 수 있고,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 여기에 나열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거한 해결책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 버리라 하심이니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버리라. 그래서 나는 보통 교실을 둘러보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 누구도 정욕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웃으며, 때로는 긴장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대 유대인들을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을 탐낼 목적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행위에 대해 유죄입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는 이것과 다른 곳을 언급합니다.

한번은 회당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인 랍비가 매우 은혜로운 말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개혁 랍비였습니다. 따라서 정통 랍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정욕이 잘못이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약간의 선하고 건강한 정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내 생각에 그는 사악한 충동인 예지르 하라(yetzir ha-ra)에 대한 유대교 가르침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 가르침에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성욕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중에 그에게 지적하면서 실제로 유대 전통은 정욕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해 두루마리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열두 족장들의 유언에도 분명합니다.

실제로 2세기 초 랍비 이스마엘 학교에서 이 랍비들은 음, 성적으로 자신을 자극하면 간음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여러분이 그 유대인의 어떤 것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십계명 중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중 제10계명에는 네 이웃의 아내와 다른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도둑질하지도 말고 그런 것도 탐내지 말고 네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어 번역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사용된 단어와 정확히 같습니다. 예수님은 탐내지 말라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연히 나무를 보고 '아, 저거 좋은 나무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우연히 다른 성별의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소유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 명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어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준에서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혼으로 배우자를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부입니다.